

李 당선인 언급 '자원의외교형' 총리 누굴까?

외교·경제 실력 갖춘 '글로벌 리더'

한승주·손병두·안병만·이경숙 물망
비서실장 '실무형' 인사 가능성 높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총리의 역할과 총리 인선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대통령과 총리의 관계설정이 어떻게 이뤄질지, 또 누가 초대 총리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총리 인선은 이 당선인의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물론 경제계를 포함한 각계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총리의 위상과 역할은= 이 당선인은 이날 회견에서 "총리실은 조정기능에 한정 지어 일을 할까 생각한다"며 총리실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 총리의 역할에 대해 "대통령이나 총리는 각자의 역할이 있다. 총리는 보조역할이 아니라 총리 자체의 독자적인 업무를 갖고 국내외

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약하면 새 정부에서 총리의 기능과 권한은 축소되지만 대통령의 역할을 일정부분 대신해 '세일즈 외교'라는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새로운 위상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총리의 위상조정에 따라 내각도 철저히 일 중심으로 실무형으로 짜일 것으로 보인다.

◇누가 총리 물망에 오르나= 정치적 고려나 총선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일 중심'으로 총리를 인선하겠다고 밝혀 온 이 당선인은 이날 회견에서 '자원의외교'라는 기준을 새롭게 추가했다. 한마디로 '글로벌 리더'를 찾고 있는 셈이다.

별써부터 초대 총리는 영어를 기본으로 외교와 경제실력을 두루 갖춘 인물 가운데 발탁되지 않겠느냐

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4월 총선 및 당내 문제를 '원샷'으로 해결하기 위한 차원의 '박근혜 카드'나 '심대평 카드'는 이 당선인의 이날 발언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실질 폐기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비정치인 가운데 후보군 물망에 올라 있는 인사는 한승주 고려대 총장서리와 손병두 서강대 총장, 안병만 전 한국외대 총장, 이경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장 등이다.

이 가운데 한승주 고려대 총장 서리는 대외관계를 복원하고 교육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병두 서강대 총장은 기업인 출신으로 세계 투자유치 확대 등 이 당선인의 '경제관'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실무형 총리에 적임자라는 점, 안병만 전 총장의 경우 대학 경영능력을 인정받은 몇 안되는 인물인 데다 충청권(충북 괴산) 출신이라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여성이란 상징성 이외에 숙명여대의 혁신을 이끈 대학 CEO(최고경영자)로서 복잡다단한 인수위를 무난하게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서실장도 실무형 가능성=이 당선인은 취임 후 자신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비서실장에도 실무형 인사를 기용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원이 임박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는 범주에 비서실장도 포함된다는 분석이다.

비정치인 가운데 임명될 경우 국제전략연구원(GSI) 원장인 유우의 서울대 교수가 우선 거론된다. 경선 기간 정책참모 역할을 했고, 현재 취임사 준비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유 교수는 이 당선자의 의중을 가장 잘 꿰뚫고 있는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힌다.

또 당선인 비서실장인 재선의 임태희 의원과 3선의 권철현 의원, 초선의 최경환 의원이 후보군에 오르내린다.

인수위, 국정과제 보완 착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5일 일부 국정과제에 대한 이명박 당선인의 보완·수정지침에 따라 분과별 검토작업을 착수했다.

인수위는 검토결과를 취합해 다음달 중순 이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차기정부의 국정과제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우선 경제분야에서 기업들의 최대 관심사인 법인세 인하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세수결손 가능성에 대한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특히 일괄적인 5% 포인트 인하보다는 임기 5년간에 걸쳐 점진적·단계적으로 인하하되 중소기업을 우선 적용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기업 투자활성화와 관련, 기업 투자규제를 풀어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주력하기로 하고 동탄 신도시 예정지 기업들의 이주대책을 포함해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 완화방안

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어 통신요금 인하와 관련, 통신과소비 해결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청소년의 무선인터넷 과다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요금제'의 상한액에 정보이용료를 포함하는 방안을 이동통신사 전체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 인수위는 공급자인 건설업체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수요자의 요구대로 주택가격을 인하한다는 기조 하에 이미 공공택지 조성에 토지공사 등 공기업뿐만 아니라 민간업체 참여를 허용하고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2020년까지 병력을 50만여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군단 및 사단을 통폐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2020의 보완책을 수립하기로 하고 이번 주 중으로 1차 중간평가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李 당선인 신년 기자회견 정치권 반응

신당 "민생·소외계층 정책 부재"

대통합민주신당 이상호 대변인은 14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당선인이 무리한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겠다고 한 것은 다행이지만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정책이 눈에 띄지 않아 대단히 걱정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비대위원장은 논평을 내고 "나라를 통치하는 일은 기업 경영과 다르다. 내물리고 소외된 사람들의 마음까지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중당 유종필 대변인은 "이 당선인이 실용과 효율성만 강조하다 서민과 중산층, 소외된 지역에 대한 배려 등 다른 소중함 가치를 훼손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고, 창조한국당 김갑수 대변인은 "이 당선인이 소수 특권층만 혜택을 보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전명한 것 외에는 절대 다수 중산층과 서민이 기대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이 무리한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겠다고 한 것은 다행이지만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정책이 눈에 띄지 않아 대단히 걱정된다"고 밝혔다.

민중당 유종필 대변인은 "이 당선인이 실용과 효율성만 강조하다 서민과 중산층, 소외된 지역에 대한 배려 등 다른 소중함 가치를 훼손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고, 창조한국당 김갑수 대변인은 "이 당선인이 소수 특권층만 혜택을 보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전명한 것 외에는 절대 다수 중산층과 서민이 기대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 "국정운영 큰 틀 제시"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14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 "국정운영의 큰 틀을 제시한 것으로 본다"면서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회견이었다"고 말했다.

나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중요한 새 정부 출범에 있어서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해주는 중요한 회견이었다"면서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회견이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14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 "국정운영의 큰 틀을 제시한 것으로 본다"면서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회견이었다"고 말했다.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조준용 특별검사팀 관계자들이 14일 이건희 회장 직무실인 서울 이태원동 승지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후 돌아오고 있다. <연합일보제공>

"경영 심장부 급습 당했다"

삼성, 승지원 압수수색에 '당혹' '이건희 회장 직접 수사하냐' 촉각

삼성그룹은 14일 '삼성특검'이 이 건희 회장의 집무실로 쓰이고 있는 승지원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자 크게 당혹스러워하면서 향후 수사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승지원은 삼성의 핵심 의사결정과 주요 경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삼성 경영의 '메카'로 이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줄은 미처 예상치 못했다.

삼성 측은 이날 아침 승지원과 이학수 전략기획실장(부회장), 김인주 전략기획실 차장(사장), 최광해 전략기획실 재무담당 부사장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곳

로 감행된 데 대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삼성 전략기획실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압수수색이 실제로 단행됐는지 확인할 수도, 확인해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삼성 관계자들은 특히 특검이 승지원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지자 "당혹스럽고 경악스럽다"며 "심마 이 곳까지 압수수색을 당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삼성 측은 지난주 특검이 공식 가동됨에 따라 조만간 삼성 물산, SDI 등 관계 계열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감행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승지원이 압수

수색 대상이 될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삼성 관계자는 "특검이 이번 주 중에 의혹이 제기된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승지원은 그동안 의혹이 불거진 곳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크게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삼성이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 이처럼 매우 당황하는 것은 압수수색이 범위가 넓고 동시다발적으로 단행돼 차후 특검 수사가 강도높게 진행될 것임을 예고하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특검이 삼성 경영의 '메카'인 승지원을 압수수색함으로써 이 회장의 한남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배제할 수 없게 됐으며 이 회장 소환조사 가능성도 더 커졌기 때문이다.

'승지원'은 어떤 곳

이병철 前 회장 거처... '삼성의 聖地'

'삼성의 의혹' 특검이 14일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간 승지원은 삼성 경영의 '메카'로 통한다. 승지원은 선대 이병철 회장이 살았던 집으로 1987년 이병철 회장 사후 이건희 회장이 물려받아 집무실 겸 영빈관으로 개조했다. 승지원은 삼성의 핵심 의사결정, 주요 경영행위가 이루어진 곳

이며 이병철 선대회장과 이건희 회장이 국내외 주요 손님들을 맞은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하다. 승지원은 현재 이건희 삼성 회장의 집무실이자 삼성그룹의 영빈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회장의 한남동 자택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다. 이 회장의 집무실은 2개로 서울 중구 삼성전자 본관 28층에 하나

가 있고 또 하나가 승지원인데 이 회장은 삼성전자 본관의 회장실에는 일반 내내 거의 출근하지 않고 주로 승지원에서 업무를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승지원은 한남동 하얏트호텔 정문에서 도보로 7~8분 거리에 있으며 대지 300평, 건평 100평에 본관과 부속건물 등 2개동으로 구성돼 있다.

Advertisement for '전액국비수강생모집' (Full government scholarship student recruitment) at '현대직업전문학교' (Modern Vocational College). It lists various courses like '부동산실무' (Real Estate Practice) and '컴퓨터' (Computer) with details on duration and fees.

Advertisement for '7급 공무원' (7th Grade Civil Servant) exam preparation. It lists various subjects like '행정법', '국문', '영어' and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for 'www.mdgoal.co.kr'.

Advertisement for '9급 공무원' (9th Grade Civil Servant) exam preparation. It features '한빛공무원학원' (Hanbit Civil Servant Academy) and lists subjects like '9급 문제풀이반' and '9급 이론찍수반'.

Large advertisement for '베트남 국제결혼' (Vietnam International Marriage). It promotes marriage services with a list of benefits, contact information for '아오자이국제결혼' (Aozai International Marriage), and a phone number: 062)232-8966.